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10.(목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
담당과장	이용필 과장(044-203-5360)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양정식 사무관(044-203-5361) 정대환 사무관(044-203-5372)

산업부,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

-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-
- 금년초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중, 3회차 실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에서 현재 마련중인 **「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**하고 **업계 의견을 들었다.**

○ 일시·장소 : '19.1.10.(목) 14:30, 한국기술센터
○ 참석 :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한국에너지공단, 에너지기술평가원, 신재생에너지협회, 풍력산업협회, 두산중공업, 효성중공업, 유니슨, 동국 S&C, 우림기계, 주식회사 동성,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

○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**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**와 **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지원 방안의 도입**이다.

□ 이번 간담회에서는 **친환경적인**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**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**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.

○ 특히,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,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,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.

□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**풍력발전소 주변 지역*에 지원이 강화**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.

*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

○ 간담회에 참석한 **업계 관계자는** 재생에너지 보급은 **국민과의 공감대 형성**과 **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**하다고 말했다.

○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**기술적·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**해 주변지역 **지원대상 범위**를 합리적으로 **조정*** 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.

* 금년 하반기 법률개정(안) 국회 발의 예정

□ 한편, 재생에너지 설비의 **운영**과 **제조 과정**의 **친환경성 확보**를 위해 설비의 **제조·설치·운영 모든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**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**'탄소인증제'를 소개**하고, 국내 **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**하기로 했다.

* '19년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'20년 도입 추진

○ 동 제도는 **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**중인 탄소발자국(Carbon Footprint)* 제도가 **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**가 있고,

* 탄소발자국(Carbon Footprint) : 제품생산 全주기(원자재, 물류, 생산, 소비, 폐기)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·CO_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

○ **친환경 설비를 확대**하는 **세계적인 추세에 대응**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.

< (참고) 해외 탄소발자국(Carbon FootPrint) 제도화 현황 >

▸ **프랑스는** '17년부터 **정부 발주**(순간최대 발전량 100kWp 이상)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**공공조달** 입찰에서 **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**하여 평가중

▸ **EU는**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**제품환경발자국**(PEF) 제도 법안을 '20.12월까지 EU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, 동 제도 **시행시 공공구매 시장에 적용**될 전망

□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“국내 풍력시장은 **작년에 반등은 성공했**으나, 아직 최고 수준인 **2015년의 80% 수준**에 머물고 있다.”라고 말하며,

* 신규설치(MW) : ('15) 208 → ('16) 187 → ('17) 113 → ('18e) 168

○ “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**환경성** 및 **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**되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○ 이어, “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국제 **경쟁력을 확보**하고 **양질의 일자리 창출** 등 **국민들의 요구에 부응**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양정식 사무관(☎ 044-203-5361),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정대환 사무관(☎ 044-203-53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「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 관련 업계 간담회

□ 회의 목적

○ 수립 중에 있는 「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의 주요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**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**

* 1.3일 태양광 대기업, 1.4일 태양광 중소기업에 이어 3번째 간담회

□ 회의 개요

○ **일시** : '19. 1. 10(목), 14:30~16:00

○ **장소** :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

○ **참석자(안)** : 산업부, 유관기관, 풍력업계, 협회 등 약 12명

* 업계(7) : 두산중, 효성중, 유니슨, 동국 S&C, 우림기계, 동성, 휴먼컴포지트

○ **안건** : 「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 초안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4:30 ~ 14:35	5′	인사말씀	실장님
14:35 ~ 14:50	15′	「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 주요 내용	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
14:50 ~ 15:55	65′	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5:55 ~ 16:00	5′	마무리 말씀	실장님